



폭염에 말라 죽어가는 가로화단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주변 '가로화단'의 수목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에 물을 뿌리면서도 정작 화단에는 물을 주지 않아 나무들이 무더기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 해당 가로화단은 광주시가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조성한 것이다. /최현배 기자choi@

폭염에 오존까지...전남 주의보 2배 급증

올 24회 모두 동부권에 집중 산단 밀집 영향...절감책 시급 광주는 7년간 '0' 청정지역

8일까지) 전남에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총 24회다. 월별로는 4월 2회, 5월 3회, 6월 10회, 7월 8회 등이다. 전남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여수 11회와 순천·광양 각각 6회 등 24회 모두 전남 동부지역에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배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오존주의보가 10회 발령됐으며, 올해처럼 모두 여수, 광양,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이었다. 전남지역의 오존주의보는 증가세다. 2015년 7회에서 2016년 23회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16회로 주춤했으나, 올해 이미 23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는 올 여름 전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오존주의보 발령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지난 2011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7년간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광주와 달리 전남 동부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수시로 발령되는 것은 여수산단과 광양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공장, 제철소 등의 대형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광양 등은 지리적 특성상 오염원의 외부 유출이 상대적으로 힘든 분지 형태라는 점도 오존 발생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오존은 공장이나 자동차에

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며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손상을 주며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존은 요즘 같이 고온이 지속되고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 오존이 생성되기 쉽고 축적된 여름철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며 시간당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이소영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담당관은 "내년부터 전남 동부지역에 오존이 집중되는 원인과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명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 뜨 05:47 해 지 19:28 달 뜨 02:59 달 지 17:38

껍질 줄 모르는 폭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26/36	보성	구름 많음	24/34
목포	구름 많음	27/34	순천	구름 많음	27/35
여수	구름 많음	27/34	영광	구름 많음	26/35
나주	구름 많음	25/36	진도	구름 많음	26/34
완도	구름 많음	26/34	전주	구름 많음	26/35
구례	차차흐려져 비	25/35	군산	구름 많음	25/33
강진	구름 많음	24/34	남원	구름 많음	25/35
해남	구름 많음	25/34	홍산도	구름 많음	26/32
장성	구름 많음	24/3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0.5~1.5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매우 높음	지외선
보통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38 17:39	11:58 --:--
여수	간조	만조
	01:08 13:12	07:08 19:54

◇주간 날씨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	☁	☁	☁	☁	☁	☁
27/34	26/35	25/35	25/35	25/35	25/35	25/35

정부 가슴기 살균제 피해구제 질환 확대

폐렴·독성간염 등 연내 지원 대상이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 피부염, 내년 하반기에 기타 질환·후유장해를 특별구제 대상으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구제대상은 기업 자금,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 1월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4명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슴기 살균제 피해신고는 광주 159명, 전남 125명이다. 이 중 광주 38명, 전남 41명 등 총 79명(27.8%)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사교육청 '광주교육 실태조사'

광주 학생 10명 중 5명은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유는 학업과 진로 불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2018 광주교육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교육 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는 광주지역 초·중·고 69개교 학생 2500여명, 교사 1300여명, 학부모 1800여명 등 총 5600여 명이 참여했다.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대답한 학생은 18.0%로 조사됐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학업문제'가

광주학생 10명중 5명 아침밥 굶는다

75.5% 사교육 받아...스트레스 원인은 학업·진로·외로움順

44.2%를 차지했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40.6%, '외로움'이 23.0%였다. '지난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학생 20.7%가 '예'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44.8%가 '학업성적'이었고 친구와 갈등이 15.2%, 선생님과의 갈등이 5.5%, 괴롭힘과 따돌림 3.8%로 조사됐다. 현재 사교육(학원, 과외수업 등)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5.5%였으며, 사

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은 수학(86.4%)과 영어(75.6%)가 대부분이었다. 광주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약 7.1시간으로 전국 통계(7시간 15분)보다 조금 적었다. 매일 아침밥을 먹는 학생은 55.2%로, 주중에 한 번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은 16.8%였다. 교사가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생활교육의 어려움'(72.4%)이었고 '행정업무'(70.7%), 외부 민원(50.8%), 교권 침해(50.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 교사는 31.3%로, '학생지도의 어려움'(40.5%)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학부모의 경우 평일 저녁 모두 자녀와 밥을 먹는 부모는 59.3%였으며, 평일 단 하루도 자녀와 저녁을 먹지 않는 부모는 8.3%였다. 하루 평균 자녀와의 대화 시간은 36분에 불과했다. 학부모 5명 중 1명(21.9%)은 최근 1년 동안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체벌 이유는 '거짓말' 11.6%, '부모에게 대들' 8.3%, '악속어감' 7.2%, '스마트폰 과다 사용' 4.5%, '짜증' 4.2%, '물건 훔침' 1.3%, '성적하락' 0.5% 순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h@

목포 11~15일 바닷물 수위 상승...저지대 침수 주의보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상승해 해안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1~15일 새벽 2~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가까이 올라간다는 시는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했다.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는 차량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 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발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썬그린에너지(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